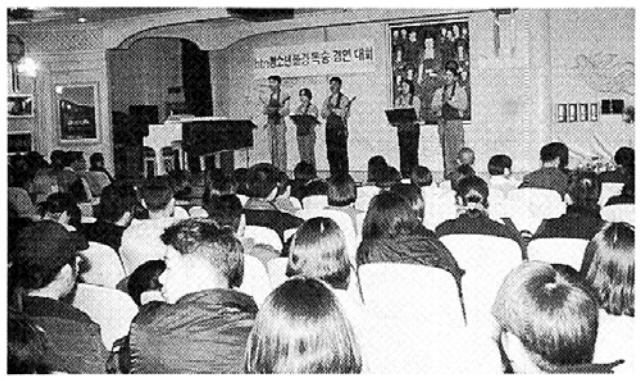
"독경으로 다지는 불심과 우정"

btn '제1회 청소년 불경독송' 경연대회



◇ 1박2일간 구룡사에서 열린 청소년 독경대회

초롱초롱하고 큰 눈망울, 금방이라도 재잘거리며 웃음꽃을 터트릴 것 같은 미소…. 신흥사·심원사·구룡사학생회 등의 청신사 청신녀들.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익숙한 신세대 청소년 불자들이 〈반야심경〉 〈천수경〉등의 독송집을 지니고 구룡사 법당을 가득 메웠다.

불교텔레비전이 '21세기 청년불자여여명을'이란 주제로 지난 20~21일 1박 2일간에 걸쳐 구룡사에서 전국의 청소년 불자1백여명을 대상으로 제1회 불경독경대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전 음성공양을 올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하나가 되어 참선과 법담을 나누며 우정과 추억만들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다.

지장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학생회 임석현군은 "처음에는 타 지역에서 온 법우들과 다소 어색했으나 심원사의 유래, 법회활동,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하다보니 금방 친숙하게 됐습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21일 오후 1시, 청소년들의 가슴은 점점 고동쳐오기 시작한다. 이번 법회의 하일라이트인 독경대회가 임박했기 때문. 광동여고의 '우리말 반야심경독경'으로 시작된 독경대회는 각 팀의 독경이 이어지면서 진지함은 더해갔고, 법당 가득 메운 청소년들의 열기는 한겨울의 동장군을 무색케 했다.

부처님전 불경독송 진지한 자세
"신세대도 염불공양 생활화 했으면"
최우수상 신흥사·우수상 대각사

특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커다란 목탁을 힘껏 움켜잡고 또박또박 읊조리는 염불소리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부처님 도량을 찾은 신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청아한 독경소리에 매료되어 동참하게 됐다는 보명화 보살은 "스님들의 염불처럼 완숙하지는 않지만 자신감에 넘쳐 목청껏 염불하는 모습이 깜찍하고 인상적이었다"며 각 팀의 독경대회가 끝날때까지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며 즐거워했다.

독경대회 도중 목탁집전이 너무 빨라 당황하는 일, 게송을 잊어 버리는 일 등도 속출하지만 경청하는 법우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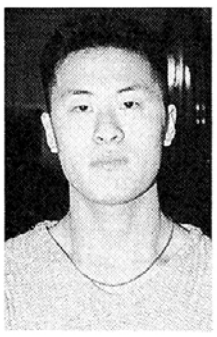
본선 10팀이 열띤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경기 신흥사가 최우상을, 경기 대각사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우리말 천수경 독경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쥔 신흥사학생회 불자들은 "뜻밖의 결과를 얻게 돼어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정성껏 지도해 주신 주지스님과 부처님에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입을 모았다.

김중근 기자

우리절 X세대 스타

구룡사 학생회장 진동욱군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부처님 품을 찾아 법회준비를 하고 있는 진동욱군(상문고 2)은 구룡사학생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옹골찬 신세대 스타 불자이다.

친구의 권유로 법회에 참석, 주지스님의 설법을 듣고 본격적으로 삼보에 귀의하게 됐다고 말하는 진군은 "학교내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교가 어렵고 어머님들만이 가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어 안타깝다"며 "법회에서 배운 재미있는 부처님 이야기를 통해 같은 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법회에 동참시키고 있다"고 자신의 포교전략을 말한다.

"친구들 포교 노하우 있어요"

이처럼 진군의 포교는 특별하지 않다. 그의 생활이 포교이고 구룡스타가 된 원인중의 하나다. 특히 구룡사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군은 사찰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야구 농구등에 월등한 실력을 발휘, 만능 스포츠맨으로도 통하고 있다고. 〈중〉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법회탐방 명락사 학생회법회

30분 관음정진 "방학을 알차게"
교리공부·사찰 불사돕기 열심

"지금부터 불기 2540년 1월 21일 학생회 정기법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총무 이성호군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천태종 명락사(주지 도정) 학생회법회가 여학생 20여명, 남학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삼귀의례와 찬불가에 이어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이 차분하게 이어졌다, 학생회장 오종환군(대진전자공고 2년)이 개회사를 통해 무게있게 입을 열었다.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자율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명락사 학생법회.

"법우님들의 도움으로 법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게을러지지 말고 열심히 수행합시다."

학생회장의 목소리에 위엄이 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2 이상의 학생이 입시 때문에 거의 나오지 못해 대부분의 학생이 고1 또는 중학생인데다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어 명락사 부전 대어스님이 시종일관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말똥말똥 시선을 모으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설법을 시작했다. 스님의 설법역시 방학이 주제였다. "작심삼일(作心三日) 말고 방학동안에 공부와 수행을 병행하라"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스님은 가까운 생활속의 예를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설법을 이끌어 갔다.

설법이 끝나고 부회장 우지혜양의 발원문 낭독과 공지사항 안내에 이어 관음정진이 시작됐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관음정진은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게 하는 훌륭한 수행방편이다. 특히 주위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이 관음정진이 좋은 수련방법이 된다고 한다.

사홍서원과 산회가에 이은 폐회선언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자 지도교사 정재희(24)씨는 "집에서는 말썽쟁이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 착한 선재동자가 되어 교리공부와 수행, 사찰불사 참여에 열심"이라고 학생들을 칭찬한다. 그녀는 바쁜 직장일 틈틈이 4년동안 학생회법회를 지도해 온 학생들의 다정한 누나 언니 겸 친구다.

〈김재경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함 원

*** 성 냄의 장 ***
육신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한다

대중불교

■2월에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인연에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 가는곳: 내포일대의 불교유적을 찾아서(충남 예산 수덕사, 추사고택, 서산 개심사, 마애삼존불 등)
- 가는날: '96년 2월 3~4일 (토~일) 1박 2일
- 참가비: 55,000원 (40명 선착순 접수)
- 접 수: 대중불교 산천기행 담당자
  전화 (02) 752-7047, 764-1614 / 팩스 (02) 771-6796
  은행지로번호 : 국민은행 098-01-0236-597 김판동 (산천기행)
- 출발시간: 2월 3일 오전 8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3호선 지하철 압구정역 하차)
- 함께가는 스님: 원혜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신행이나 불교계 현안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 함께 가는 강사: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저자. 전 우리문화연구원장. 현장에서 성보에 깃든 의미를 듣고 배웁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점은 대중불교 산천기행 담당자 앞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 752-7047, 754-1614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월간 대중불교

■대중불교 2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시각디자이너 안상수 교수 · 15
대중불교 시사 · 공명선거 감시활동에 참여합시다 · 12

특집 / 업(業)
경전에서 말씀하신 업 · 34
과학으로 접근해보는 업 · 37
업보를 받는 사회 현상 · 40
악업을 소멸하고 행복을 찾아서 · 43

기획 / 신행혁신, 어떻게 해야하나
신행혁신,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 66
잃어버린 수행정신 되찾아야 한다 · 68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 (1) · 53
구산선문 (4) · 성주산문 성주사터 · 54
얼과 문화 · 고달사터 귀부 · 60

수행길의 이런 도반 · 맑고 향기롭게 사는 원중 스님 · 82
포교당 일기 · 겨울밤이 서러워지는 노보살 · 85
한국밖의 한국불교 · 미주의 불교언론이 살아난다 · 88
환생의 나라, 티벳 · 티벳불교의 중추 간덴 · 데풍 · 쎄라 · 91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학 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